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Analysis of Time Use of Double Income Paid Workers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이승미
여성가족부 장관정책보좌관실
정책보좌관 이현아

Departmen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 Seungmie Le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 Hyunah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분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ime use of dual income paid workers. The data was selected from the '2009 Korean Time Use Survey' by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re were 2799 respondents who were paid workers with dual income. There were big differences in time use between men and women. The result showed that men's time allocation focused on 'labor and leisure' and women's time allocation focused on 'labor and housework'. This means the women among dual income paid workers faced difficulties in dual burden of work-family balance. Regression analysis on time use dividing men and women showed that age, education, income, working type and the presence of preschool childre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ime allocation. We found the income effects on time use which reduced paid working time and increased housework and leisure time. Significantly, younger men who have preschool children spend more time in housework. We could find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men's time allocation.

주제어(Key Words) : 시간사용(time use), 맞벌이(double income), 임금근로자(paid workers), 일가정양립(work-family balance), 성(gender)

Corresponding Author : Hyunah Le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heonggyecheonno 8, Jung-gu, Seoul, 100-777, Korea
Tel: +82-2-2075-4508 E-mail: leehyun88@korea.kr

* 2011년 우석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I. 서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1990년 27.4%에 불과하던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2000년에는 35.4%로 늘어났고, 2009년에는 40.1%로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09). 최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30-50대 근로자 10명중 7명이 맞벌이인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세계일보, 2010. 12. 21) 이처럼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대에 기인한 것 이외에도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 심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등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맞벌이가구의 증대는 개인의 일가정양립의 문제와 가족 구성원간 역할분담의 변화 등으로 연결된다. 기존의 일인소득자 모델에서는 '남자는 일-여자는 가정'이라는 이분화된 역할구조 속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면, 맞벌이가구 모델하에서는 새로운 역할분담구조가 요구된다. 즉, 일과 가정이라는 두가지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양립할 것인가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노동시장구조는 맞벌이모델로 전환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으로 대표되는 가정내 역할구조는 여전히 많은 부분 여성에게 과중되는 불균형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 37분, 부인 3시간20분으로 남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통계청, 2010). 이는 아직도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일과 가정의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하는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또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역할과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이 저출산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에서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가정양립을 사회 각 부문에 확산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과 가정양립 일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의 확대와 개선, 유연한 근무형태의 확산, 가족친화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맞벌이가구의 일가정양립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생활시간구조를 통해서 드러난다.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개개인이 어떻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모든 개인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제약하에서 시간배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생활

시간이 크게 생리적 시간, 가사노동시간, 수입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나뉜다고 할 때, 각 영역에 대한 시간배분결정이 곧 개개인의 일가정양립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성지미, 2006; 유소이, 최윤지, 2002; 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 1994; 이기영, 송혜림, 이승미, 민순선, 서지원, 1996; 이기영, 이승미, 1994; 이현아, 이기영 1994; 조희금, 1997; 허경옥, 1997 등)에서도 생활시간 영역에 대한 시간배분방식을 분석한 바 있고, 이는 일가정양립의 양태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해봄으로써 일가정양립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맞벌이모델로의 전환에 따라 남녀의 일가정양립의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남녀간 생활시간구조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남녀간 생활시간구조분석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일가정양립 실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녀간 역할분담구조를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시간배분구조를 통해 성별 역할이 어떻게 구조화되어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남녀 임금근로자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봄으로써, 기본적인 남녀간 역할분담구조의 차이 이외에, 생활시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의 변화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생활시간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연구의 동향

개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임금변화에 따른 노동시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영향력에 초점을 두어왔다. 가구를 단위로 하여 부부의 생활시간 배분을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적 제안은 신고전경제학에 기반을 둔 Becker(1965)에 의해서이다. Becker(1965)는 노동공급의 결정을 시간배분으로 설명하면서 시간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Mincer(1962), Gronau(1977)는 여성의 노동공급과 시간배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노동 이외의 시간을 여가시간과 가정생산시간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바 있다. 또한 이들에 의하면 각 가구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 내에서 부부간의 비교우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간배분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남성은 시장노동에, 여성은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남녀간의 비교우위에 따른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교환이론과 가장 대조적인 관점은 젠더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이들은 베커의 이론이 일견 성중

립적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합리성’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젠더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했으며 (김수정, 김은지, 2007), 가구 내 시간분배는 ‘합리적 교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젠더역할의 사회화에 의한 것이며, 그 자체가 젠더수행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Bittman et al., 2003; 김수정, 김은지, 2007 재인용).

최근 시간자료를 활용한 국외연구(Gershuny, Godwin, & Jones, 1994)에서는 1970-80년대 가사노동분담의 연구경향을 적응적 파트너십(adaptive partnership)모형과 의존적 노동(dependent labour)모형 두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여기에 제3의 모델로 ‘지체된 적응모형(lagged adaptation model)’을 제안하고 있다. 적응적 파트너십모형은 가족원의 경제활동 참여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모델로 경제적 교환이론에 기반하여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것이고, 의존적 노동모형은 여성의 노동을 이차적인 것으로 보고 일차적 노동력으로서 남성의 지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로 규정하기 때문에 여성이 취업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사노동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부분의 실증연구가 횡단자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간소비에 관한 장기적 시계열연구를 통해 제3의 모델인 지체된 적응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가구의 미시적 행위는 문화적·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지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완만하지만 실질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여성의 유급 노동증가로 인한 가사노동부담을 상당 부분 대체해 왔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을 배우자의 초기사회화와 부인의 취업경험의 함수로 보고, 세대에 걸쳐 가사노동분담이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Gershuny et al., 1994).

우리나라 생활시간연구의 동향은 가정학분야에서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부나 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생활시간사용이나 구조를 분석한 연구¹⁾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 1994; 이기영, 송혜림, 이승미, 민순선, 서지원, 1996; 이기영, 이승미, 1994; 이기영, 이연숙, 김외숙, 조희금, 1996; 이연숙 외, 2002; 이현아, 이기영 1994; 임정민, 1981; 임정민, 임혜경, 1992; 조희금, 1993, 1997; 한경미, 1991; 허경옥, 1997), 초기연구에 비해 90년대 연구들은 시간일지(time-diary) 조사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연구대상의 표본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통계청에서 1999년부터 전국 대상의 생활시간조사

를 실시함에 따라 생활시간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통계청 시간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거나(김수정, 김은지, 2007; 김진옥, 2005, 2008; 성지미, 2006; 손문금, 2005),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유소이, 최윤지, 2002), 연구대상을 특정화하거나 여가나 노동시간에 초점을 둔 시간연구(윤소영, 2002; 조영희, 2003; 차승은, 2008; 한영신, 윤소영, 2009; 한지수, 홍공숙, 2007)가 활성화되고 있다.

2.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취업여부나 근무형태 등 개인관련 요인 뿐 아니라 기혼남녀의 경우 미취학자녀의 유무, 가족생활주기 등 가족관련 요인 등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성역할태도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정서 등도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므로, 생활시간조사에 포함된 항목 중에서 분석가능한 요인을 추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은 하루 24시간의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생활시간사용에 있어 여전히 성별역할분업구조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맞벌이부부의 생활시간구조분석을 통해 취업주부의 이중노동부담현상을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김수정, 김은지, 2007; 김진옥, 2005, 2008; 이기영 외, 1994; 차승은, 2008).

연령 역시 생활시간의 배분방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유소이, 최윤지, 2002)에서는 유급노동시간, 육아시간, 여가시간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지만,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기혼여성의 시간배분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성지미, 2006)에서는 연령과 비시장노동시간은 정적 관계가, 연령과 여가시간은 부적 관계였지만 여가시간에 대한 연령의 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김수정, 김은지, 2007)에서는 맞벌이가구 남녀의 가사노동시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인의 경우에만 연령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영향요

1) 가정학분야의 시간연구는 70년대 이후 다양한 주제로 활발히 이루어져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생활시간구조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만을 언급하였다.

인을 분석한 선행연구(김진옥, 2005)에서는 34세이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총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더 길며 가사노동시간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과 총노동시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가구의 유형을 맞벌이, 전통형, 한부모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통형 가구모형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김진옥, 2008)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생활시간배분과 교육수준의 관계 역시 선행연구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맞벌이 여성의 시간배분 결정요인분석(성지미, 2006)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장노동시간은 적고 여가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사노동시간과 교육수준이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유소이, 최윤지, 2002)에서는 남성의 교육수준과 유급노동시간의 부적 관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선행연구(김수정, 김은지, 2007; 김진옥, 2005, 2008)에서도 맞벌이가구에서만 중졸이하집단에 비해 다른 집단의 총노동시간은 적고 가사노동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역시 생활시간배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맞벌이 여성대상의 분석(성지미, 2006)에 의하면, 본인의 시간당 임금이 많을수록 시장노동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여성은 본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비시장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총소득이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남녀 대상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분석연구(유소이, 최윤지, 2002)에서는 가구자산을 대신해 출 변수로 주택소유, 주거전용면적, 자동차소유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주거면적이 클수록 여성의 육아시간은 적어지고, 여성의 여가시간은 많아지는 반면 남성의 시간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선행연구(김진옥, 2008)에서도 맞벌이가구와 한부모가구 모두 150만원 미만의 집단보다 소득이 높은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적었다. 따라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생활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나 근로형태는 생활시간의 배분과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선행조건이며, 특히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기혼남녀의 시간구조 결정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성인남녀 대상의 선행연구(유소이, 최윤지, 2002)에 의하면 유급노동 종사여부가 성인 남녀의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모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육아시간과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급노동 종사여부가 남성의 육아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의 영향이 성

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미취학자녀의 유무 역시 생활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비시장노동(가사노동)시간은 늘어나며(성지미, 2006) 맞벌이, 비맞벌이가구 모두 취학전 자녀의 존재가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옥, 2005, 2008).

마지막으로 개인의 의식이나 가치관 역시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 변인으로 성역할태도를 들 수 있다. 일련의 선행연구에서는 남편의 진보적인 성역할태도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지만(송혜림, 1988; 이승미, 1994; 허경옥, 1994), 최근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가 생활시간배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김진옥, 2008; 채로, 이기영, 2004)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이상에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 변수의 영향력이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조사 년도와 분석대상의 상이함, 변수의 조작적 정의 상이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을 기본적 영향요인으로 보고 남녀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 생애주기변인으로 연령과 미취학자녀유무를, 인적자원변인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을, 그리고 직업관련변인으로 근무형태(전일제vs시간제)를, 인식관련 변인으로 성역할태도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사용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제3차 국민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맞벌이 임금근로자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추출된 대상자는 총2799명이고, 이중 남자가 1350명, 여자가 1449명이다. 총 5598개의 시간일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그중 평일이 3296개, 토요일이 1116개, 일요일이 1186개이다. 분석대

〈표 1〉 분석대상자의 특성

| 변수 | 구분 | 단위:빈도(%) | | |
|----------|----------------|------------------|--------------------|--------------------|
| | | 전체 (N = 2799) | 남 (1350(48.2%)) | 여 (1449(51.8%)) |
| 연령 | 20-29세 | 140(5.0) | 42(3.1) | 98(6.8) |
| | 30-39세 | 1404(32.3) | 378(28.0) | 526(36.3) |
| | 40-49세 | 1258(44.9) | 623(46.1) | 635(43.8) |
| | 50-59세 | 497(17.8) | 307(22.7) | 190(13.1) |
| | 평균(표준편차) | 42.1세(7.52) | 43.5세(7.54) | 40.7세(7.25) |
| 교육수준 | 중졸이하 | 321(11.6) | 127(9.4) | 197(13.6) |
| | 고졸 | 1270(45.4) | 528(39.1) | 742(51.2) |
| | 대졸 | 1047(37.4) | 589(43.7) | 458(31.6) |
| | 대학원 | 158(5.7) | 106(7.7) | 52(3.6) |
| 직업 | 관리자·전문가 | 610(21.8) | 296(22.0) | 314(21.7) |
| | 사무직 | 634(22.7) | 324(24.0) | 310(21.4) |
| | 서비스·판매직 | 527(18.9) | 128(9.5) | 399(27.6) |
| | 농림·기능원·장치기계종사자 | 604(21.6) | 459(34.1) | 145(10.0) |
| | 단순노무종사자 | 420(15.0) | 140(10.4) | 280(19.3) |
| 월평균소득 | 100만원 미만 | 739(26.4) | 80(5.9) | 659(45.5) |
| | 100~200만원 미만 | 1004(35.8) | 449(33.3) | 555(38.3) |
| | 200~300만원 미만 | 590(21.0) | 449(33.3) | 141(9.7) |
| | 300~400만원 미만 | 287(10.2) | 216(16.0) | 71(4.9) |
| | 400만원 이상 | 179(6.4) | 156(11.5) | 23(1.6) |
| 성역할 태도 | 전통적 | 898(32.1) | 548(40.6) | 350(24.2) |
| | 근대적 | 1901(67.9) | 802(59.4) | 1099(75.8) |
| 임금근로 형태 | 전일제 | 2359(83.9) | 1269(94.0) | 1080(74.5) |
| | 시간제 | 450(16.1) | 81(6.0) | 369(25.5) |
| 미취학자녀 유무 | 있음 | 594(21.2) | 286(21.2) | 308(21.3) |
| | 없음 | 2205(78.8) | 1064(78.8) | 1141(78.7) |

상자의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다.

연령은 전체적으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 50대, 20대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남성의 평균연령이 43.5세, 여성의 평균연령이 40.7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3세가량 높다.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는 고졸, 대졸, 중졸이하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은 대졸이 고졸보다 더 많고, 여성은 고졸이 대졸보다 비중이 높았다. 직업 특성에 있어서도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및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종사자가 3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여성은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사무직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많고, 여성은 단순노무종사자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에도 남녀간에 차이가 있어 남성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데 반해 여성은 100만원미만이 가장 많아 성별 소득수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무형태에서도 드러나는데, 남성은 94%가 전일제인데 반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시간제의 비율이 25.5%로 높았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낮고 직업에 있어서도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종사자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시간제근로를 많이 하는 등 직업지위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성역할태도에 있어서는 여성의 75.8%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20% 정도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분석방법

20세 이상 60세 미만 맞벌이임금근로자의 남녀간 생활시간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서 생활시간 대분류(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재 및 여가활동, 기타)로 분류하여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남녀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근무형태, 미취학자녀유무, 성역할태도를 투입하였다. 이중 연령은 만나이를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로 환산하고, 월평균소득은 구간으로 조사된 소득수준을 중간값으로 계산하여 연속변수로 만들어주었다. 근무형태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며, 전일제를 기준변수로 터미변수화하였다. 미취학자녀유무 또한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터미변수화하였다. 성역할태도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를 1로, '찬성하는 편이다'를 2로, '반대하는 편이다'를 3으로, '매우 반대한다'를 4로 조사된 연

〈표 2〉 생활시간영역의 활동분류

| 종속변수 | 활동분류 | | |
|-------------------|---------------------|----------------------|---------|
| | 대분류 | 중분류 | |
| 생리적 시간 | 1. 개인유지 | 11 수면 | |
| | | 12 식사 및 간식 | |
| | | 13 개인관리 | |
| | | 14 건강관리 | |
| | | 19 기타 개인유지 | |
| 수입 노동 시간 | 2. 일 | 81 개인유지관련 이동 | |
| | | 21 고용된 및 및 자영업 | |
| | | 22 무급가족 종사일 | |
| | | 23 농림어업의 무급가족 종사일 | |
| | | 24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 |
| | | 25 구직활동 | |
| | | 26 일관련 물품구입 | |
| | | 29 기타 일 관련 행동 | |
| | | 82 출퇴근 및 그외 일관련 이동 | |
| | | 가사 노동 시간 | 4. 가정관리 |
| 42 의류관리 | | | |
| 43 청소 및 정리 | | | |
| 44 집 관리 | | | |
|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 | | |
| 46 가정경영 | | | |
| 49 기타 가사일 | | | |
| 84 가정관리관련 이동 | | | |
| 5. 가족 보살피기 | 5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 |
| |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 |
| | 53 배우자 보살피기 | | |
| |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 | |
| | 55 그 외 가족보살피기 | | |
| 6. 참여 및 봉사활동 | 85 가족보살피기관련 이동 | | |
| | 6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 | | |
| | 62 참여활동 | | |
| | 63 자원봉사 | | |
| 여가 시간 | 7. 교제 및 여가활동 | 86 참여 및 봉사활동관련 이동 | |
| | | 71 교제활동 | |
| | | 72 일반인의 학습 | |
| | | 73 미디어 이용 | |
| | | 74 종교활동 | |
| | | 75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 |
| | | 7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 |
| | | 77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 |
| | | 7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 |
| | | 79 기타 여가관련 행동 | |
| 87 교제 및 여가활동관련 이동 | | | |

속변수이다. 종속변수인 생활시간은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분류하였고, 아래와 같이 시간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분석

1.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남녀간 생활시간사용비교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생활시간사용을 남녀로 나누어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는 〈표 3〉과 같

다. 우선 평일의 경우 학습의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의 생활시간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유지시간은 남성이 10시간 24분으로 여성의 10시간 15분보다 길었다. 일하는 근무시간도 남성이 9시간 11분으로 여성의 7시간 28분보다 훨씬 길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1시간 40분가량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남성 37분, 여성 3시간13분으로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관리시간은 남성이 20분, 여성이 2시간21분으로 2시간이상 차이가 있었다. 가족보살피기시간도 역시 남성이 17분, 여성이 52분으로 큰 격차가 존재한다. 가사노동시간에서의 성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경우 남성이 3시간 32분 여성이 2시간 46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0분 이상 긴 여가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여가시간의 세부항목으로 보았을 때 참여 및 봉사활동은 남녀 모두 저조한 참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로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평일 남녀의 시간배분구조를 비교해본 결과, 맞벌이 임금근로자라 할지라도 남성은 일 중심으로 여성은 가사노동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요일의 경우 개인유지시간은 남녀 모두 평일보다는 조금 많은 11시간 7분, 11시간 10분으로 나타났으나 남녀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남성이 5시간 17분, 여성이 3시간55분으로 남성이 훨씬 길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1시간 20분 가량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토요일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평일과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를 합한 추가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이 1시간 20분, 여성은 4시간 23분으로 3시간이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정관리시간에 있어 남성이 47분, 여성이 3시간 24분으로 차이가 컸다. 가족보살피기도 남성 33분, 여성 59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여가시간은 남성 6시간 1분, 여성 4시간 15분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1시간 40분이 상 길게 여가시간을 누리고 있었다. 토요일 남녀의 시간사용실태를 분석해보아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가사노동 중심의 양태가 보인다. 평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남녀간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즉, 평일에 비해 줄어든 근무시간을 여성은 평일에 못했던 집안일을 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할애하는 방식으로 성별 생활시간배분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일요일 남녀간 생활시간사용실태를 비교해보면, 개인유지시간은 남성 12시간 6분, 여성 11시간 51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분 더 길었다. 일요일 근무시간은 남성 2시간 36분, 여성 1시간 56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0분 더 길게 나

〈표 3〉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남녀간 생활시간평균비교(평일, 토요일, 일요일)

(단위: 시간:분)

| 분류 | 평일 | | | 토요일 | | | 일요일 | | |
|---------|-------|-------|-----------|-------|-------|-----------|-------|-------|-----------|
| | 남자 | 여자 | t-value | 남자 | 여자 | t-value | 남자 | 여자 | t-value |
| 개인유지 | 10:24 | 10:15 | 2.89** | 11:07 | 11:10 | -.516 | 12:06 | 11:51 | 2.17* |
| 일 | 9:11 | 7:28 | 16.99** | 5:17 | 3:55 | 5.37*** | 2:36 | 1:56 | 3.03** |
| 학습 | 1 | 1 | -1.03 | 1 | 0 | 1.09 | 1 | 0 | 1.05 |
| 가사노동 | 37 | 3:13 | -44.78*** | 1:20 | 4:23 | -21.45*** | 1:40 | 4:45 | -22.89*** |
| 가정관리 | 20 | 2:21 | -50.27*** | 47 | 3:24 | -24.79*** | 1:06 | 3:55 | -26.33*** |
| 가족보살피기 | 17 | 52 | -15.46*** | 33 | 59 | -5.16*** | 34 | 50 | -3.36** |
| 여가 | 3:32 | 2:46 | 10.75*** | 6:01 | 6:15 | 9.60*** | 7:21 | 5:10 | 11.94*** |
| 참여 및 봉사 | 1 | 1 | -1.42 | 3 | 2 | .296 | 1 | 1 | -.607 |
| 교제 및 여가 | 211 | 165 | 11.00*** | 5:58 | 6:13 | 9.63*** | 7:20 | 5:09 | 11.99*** |
| 기타 | 15 | 17 | -4.17*** | 14 | 17 | -2.03* | 16 | 18 | -2.18* |
| 합계 | 24:00 | 24:00 | | 24:00 | 24:00 | | 24:00 | 24:00 | |

* $p < .05$, ** $p < .01$, *** $p < .001$

타났다. 평일과 토요일에 비해서는 근무시간의 성별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남성 1시간 40분, 여성 4시간 45분으로 3시간이상 차이가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가정관리시간에 남성은 1시간 6분, 여성은 3시간 55분, 가족보살피기에 남성 34분, 여성 50분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토요일 가사노동시간의 남녀간 양상이 시간만 조금씩 증가된 상태로 일요일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경우 남성은 7시간 21분, 여성은 5시간 10분으로 2시간 넘게 차이가 있었고, 이는 토요일 남녀간 격차보다도 더 커진 것이다. 이를 통해서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성이 평일과 토요일에 비해 줄어든 근무시간을 여가시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 임금근로자라 할지라도 남성은 일중심, 여성은 가사노동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평일의 경우 필수적인 시간인 개인유지시간을 제외하고 남성은 일하는 근무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다음이 여가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사노동시간은 단 37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의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맞벌이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하루 24시간중 남성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이 가장 길지만, 그 다음으로 가사노동시간의 비중이 컸고, 여가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성은 일과 여가에 여성은 일과 가사노동에 시간배분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요일의 시간구조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남성의 경우 평일에 비해 줄어든 근무시간이 거의 대부분 여가시간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토요일의 경우 근무시간보다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도 더 많을 정도

로 가정내에서의 역할책임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근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해서 총노동시간으로 분석해보면, 남녀의 역할분담구조와 역할과중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평일 남성의 총노동시간은 9시간 48분, 여성의 총노동시간은 10시간 41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53분 노동시간이 더 길다. 근무시간만을 비교할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가사노동까지 합산한 총노동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노동시간이 더 긴 것이다.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토요일의 경우 남성의 총노동시간은 6시간 37분, 여성의 총노동시간은 8시간 18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1시간 21분 정도 더 길다. 토요일 역시 남성보다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더 길고, 남녀간 총노동시간의 격차가 평일에 비해서 더 커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일요일의 경우에도 남성의 총노동시간은 4시간 16분, 여성의 총노동시간은 6시간 41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2시간 25분이나 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에서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고, 더불어 남녀간 격차가 평일 53분, 토요일 1시간21분, 일요일 2시간 25분으로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주5일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주말에 남성은 줄어든 근무시간을 자신의 여가시간으로 재분배하는데 반해, 여성은 가사노동시간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총노동시간이 남성만큼 크게 줄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총노동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아도 맞벌이임금근로자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생활시간구조가 남녀간에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일과 여가중심의 시간배분, 여성은 일과 가정중심의 시간배분의 양상을 보인다. 근

무시간이 줄어든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에 남녀간에 시간 재구조화 양상을 통해서도 남성은 여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여성은 가사노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간배분의 방향이 달리 나타났고, 또한 총노동시간분석에서도 여성이 일과 가정 모두를 책임지고 양립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결국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임금근로자에게서도 여전히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역할분담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생활시간구조가 확연히 다른 만큼, 이하에서는 남녀를 분리하여 각 집단별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별 변수 이외에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인적자원관련 변수, 근무형태와 같은 직업관련변수, 연령과 미취학자녀유무 등 생애주기관련변수, 성역할태도와 같은 인식관련변수가 생활시간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생활시간을 크게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나누어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회귀분석 해보았다.

(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성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는 평일 맞벌이임금근로자 남성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평일 남성 맞벌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생리적 시간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길고, 수입노동시간은 소득이 높을수록, 전일제인 경우,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더 길었다. 가사노동시간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더 길게 나타났다. 여가시간은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제인 경우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영향요인들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이 전반적으로 10%미만으로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본 연구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되어진 항목 중에서 독립변수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 중에는 영역별 생활시간사용량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경우에 설명력이 높게 나오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의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는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시간배분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을 자세히 살펴

보면, 먼저 연령은 가사노동시간에는 부적으로, 여가시간에는 정적으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즉, 젊은 사람일수록 가사노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나이든 사람일수록 여가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것이다. 생활시간배분에 있어서 세대 차이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령의 효과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거나(유소이, 최윤지, 2002) 유의미하지 않은 선행연구(김진욱, 2005)와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1999년의 생활시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와 생활시간 구분이 다르고, 연구대상이 다르며, 요일을 구분하지 않은 하루평균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추가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의 효과에 주목한다면, 생활시간배분에 있어서 남성의 변화가능성이 보인다. 즉, 젊은 세대의 남성에게서 가사노동참여의 증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수입노동시간에는 정적으로, 그리고 가사노동시간에는 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늘어날수록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은 줄이는 방식으로 시간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의 향상을 임금을 상승으로 간주한다면, 임금을 상승의 대체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성의 교육수준은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일 보다는 '가정'이나 '여가'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교육수준의 향상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교육수준과 임금율의 정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교육수준과 가사노동시간 및 여가시간의 정적 관계는 임금상승에 의한 소득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육수준향상에 따라 소득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을 줄이고 가정과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취학자녀유무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입노동시간에는 부적으로, 가사노동시간에는 정적으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미취학자녀의 유무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성역할태도는 평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성의 생활시간 사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생활시간배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연구결과(김진욱, 2008; 채로, 이기영, 2004)와 일치한다. 따라서 성역할태도와 같은 인식변수보다는 교육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인적자원변수, 연령이나 미취학자녀유무와 같은 생애주기변수, 근

〈표 4〉 평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성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평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성의 생활시간사용 | | | | | | | | |
|-------------------------|------------|----------|------------|---------|-----------|----------|------------|----------|
| 변인 | 생리적 시간 | | 수입노동시간 | | 가사노동시간 | | 여가시간 | |
|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 연령 | .197 | .017 | -1.282 | -.056 | -.497 | -.057* | 1.433 | .084** |
| 교육수준 | -3.546 | -.108*** | -2.210 | -.035 | 2.774 | .116*** | 3.078 | .065* |
| 개인월평균소득 | -.039 | -.052 | .168 | .117*** | -.067 | -.122*** | -.052 | -.048 |
| 근무형태(전일제 기준) | 13.536 | .036 | 70.235 | .096*** | -15.137 | -.055* | -68.629 | -.125*** |
| 미취학자녀유무 (미취학자녀유 기준) | 9.602 | .045 | -34.690 | -.085** | 32.610 | .210*** | -8.209 | -.027 |
| 성역할태도 | -1.484 | -.011 | -2.557 | -.010 | 3.195 | .032 | -.490 | -.098 |
| 상수항 | 662.056*** | | 542.332*** | | 37.757* | | 188.969*** | |
| R ² | .021 | | .031 | | .094 | | .029 | |
| 수정된 R ² | .017 | | .027 | | .090 | | .026 | |
| F | 5.630*** | | 8.517*** | | 27.402*** | | 7.975*** | |

* p < .05, ** p < .01, *** p < .001

무형태와 같은 직접적인 직업조건변수 등이 생활시간배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평일 남성이 생활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자원과 가족적 상황 등 개인적 또는 가족적 조건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토요일의 경우, 남성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생리적 시간에 대해서는 성역할태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수면과 식사, 개인관리 등의 생리적 시간이 길어졌다. 수입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즉,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일수록 수입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토요일 가사

노동시간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토요일 남성의 여가시간은 교육수준과 월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다.

토요일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은 매우 전통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즉,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전통적인 성역할의 남성들에게서 근무시간이 길게 나타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남성들의 생리적 시간이 길게 나타난 것을 이와 연계해서 보면,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일을 더 많이 하고, 진보적일수록 수면이나 식사 등의 개인유지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과 여가

〈표 5〉 토요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성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토요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성의 생활시간사용 | | | | | | | | |
|--------------------------|------------|--------|------------|----------|-----------|---------|----------|---------|
| 변인 | 생리적 시간 | | 수입노동시간 | | 가사노동시간 | | 여가시간 | |
|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 연령 | -1.430 | -.096 | 3.055 | .089 | -.709 | -.048 | -1.214 | -.045 |
| 교육수준 | -.060 | -.001 | -13.506 | -.141** | 3.909 | .096* | 8.773 | .117* |
| 개인월평균소득 | .073 | .077 | -.385 | -.175*** | .044 | .047 | -.281 | .163*** |
| 근무형태(전일제 기준) | 17.714 | .039 | 32.147 | .031 | -13.238 | -.030 | -20.814 | -.025 |
| 미취학자녀유무 (미취학자녀유 기준) | .796 | .003 | -26.741 | -.042 | 71.081 | .260*** | -50.993 | -.101* |
| 성역할태도 | 15.206 | .088* | -40.757 | -.102* | 7.385 | .044 | 17.154 | .055 |
| 상수항 | 655.277*** | | 545.919*** | | 24.273 | | 209.843* | |
| R ² | .027 | | .032 | | .109 | | .068 | |
| 수정된 R ² | .016 | | .021 | | .099 | | .057 | |
| F | 2.435* | | 2.888** | | 10.689*** | | 6.359*** | |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일요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성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변인 | 일요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성의 생활시간사용 | | | | | | | |
|------------------------|--------------------------|--------|----------|--------|----------|---------|------------|--------|
| | 생리적 시간 | | 수입노동시간 | | 가사노동시간 | | 여가시간 | |
|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 연령 | -1.303 | -.080 | .053 | .002 | -.659 | -.044 | 1.822 | .071 |
| 교육수준 | 2.948 | .066 | -9.948 | -.118* | 2.949 | .072 | 3.215 | .046 |
| 개인월평균소득 | -.002 | -.001 | -.179 | -.086 | .059 | .059 | .123 | .071 |
| 근무형태(전일제 기준) | 22.752 | .043 | 36.626 | .037 | -2.986 | -.006 | -54.381 | -.065 |
| 미취학자녀유무 (미취학자녀유 기준) | 4.931 | .015 | -14.444 | -.023 | 70.419 | .235*** | -58.855 | -.114* |
| 성역할태도 | -11.199 | -.056 | 14.261 | .038 | 12.217 | .067 | -14.295 | -.046 |
| 상수항 | 749.569*** | | 264.157* | | 31.924 | | 386.961*** | |
| R ² | .022 | | .032 | | .091 | | .038 | |
| 수정된 R ² | .012 | | .022 | | .081 | | .027 | |
| F | 2.151* | | 3.115** | | 9.442*** | | 3.694** | |

* $p < .05$, ** $p < .01$, *** $p < .001$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주5일제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남성의 근무는 남자가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더 크게 해야 할 경제적 필요나 더 크게 해야 한다는 성역할 인식에 의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보다는 가정과 여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시간을 배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미취학자녀유무는 가사노동시간에는 정적으로, 여가시간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일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토요일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은 미취학자녀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토요일 남성에게 있어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간의 조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요일의 경우, 맞벌이임금근로자 남성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평일과 토요일에 비해 많지 않았다. 생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수는 없었고, 수입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성의 근무시간이 높아졌다. 일요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미취학자녀유무만이 의미있는 변수로 드러났다. 영향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로 나타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정적으로,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부적으로 분석되었다. 즉,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일요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여가시간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토요일과 비슷한 양상으로,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일요일 남성의 가사노동과 여가활동 사이에 상호교환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생리적 시간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노동시간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진보적인 성역할을 가질수록, 전일제이며,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소득수준은 낮을수록, 시간제인 경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가시간은 교육수준은 높고, 소득수준은 낮고, 시간제인 경우, 또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생리적 시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다른 생활시간에는 큰 의미가 없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수면이나 식사, 개인관리 등의 개인유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육수준은 생리적 시간과 수입노동시간에는 부적으로,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생리적 시간과 근무시간을 줄이고, 가사노동이나 여가에 보내는 시간은 늘리는 식으로 시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보다는 가정이나 여가생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평일 남성의 생활시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소득효과와 가치관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은 수입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7〉 평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평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생활시간사용 | | | | | | | | |
|-------------------------|------------|----------|------------|----------|------------|----------|------------|----------|
| 변인 | 생리적 시간 | | 수입노동시간 | | 가사노동시간 | | 여가시간 | |
|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 연령(만나이) | -1.578 | -.132*** | -.210 | -.008 | .620 | .036 | .869 | .052 |
| 교육수준(교육년수) | -2.763 | -.084** | -12.663 | -.183*** | 8.314 | .174*** | 6.358 | .138*** |
| 개인월평균소득 | .009 | .010 | .416 | .217*** | -.272 | -.206*** | -.145 | -.114*** |
| 근무형태(전일제 기준) | -.435 | -.002 | 124.474 | .303*** | -72.087 | -.254*** | -51.469 | -.188*** |
| 미취학자녀유무 (미취학자녀유 기준) | .703 | .003 | -46.076 | -.107*** | 88.692 | .300*** | -44.306 | -.155*** |
| 성역할태도 | -3.561 | -.027 | 12.654 | .045* | -5.186 | -.027 | -3.257 | -.017 |
| 상수항 | 723.782*** | | 443.327*** | | 146.680*** | | 126.607*** | |
| R ² | .017 | | .192 | | .227 | | .087 | |
| 수정된 R ² | .013 | | .189 | | .225 | | .084 | |
| F | 4.797*** | | 65.951*** | | 82.914*** | | 26.825*** | |

* p < .05, ** p < .01, *** p < .001

드러났다. 이러한 소득의 영향은 앞서 평일 남성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아질 경우에 대체효과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수입노동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가사노동이나 여가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과 가사노동시간의 부적 관계는 김진욱(2008), 성지미(2006)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나, 임금율이 높을수록 시장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성지미, 2006)와는 다른 결과로서, 임금율과 소득의 영향력 차이에 관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무형태에 따라 전일제인 경우 근로시간이 많고, 시간제인 경우 가사노동, 여가시간이 많은 것은 직업적 조건에서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미취학자녀유무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수입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는 부적 방향으로, 가사노동시간에는 정적 방향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평일 남성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미취학자녀유무가 남성의 시간사용에서는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만 영향을 준 반면, 평일 여성의 경우에는 여가시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여성의 경우 평일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해 수입노동시간 뿐 아니라 자신의 여가 시간까지도 줄이는 방식으로 시간을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토요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우선 생리적 시간은 연령이 낮고 전일제인 경우 더 길게 나타났다. 생리적 시간에 대한 연령효과는 앞서 평일 여성의 경우에 설명한 바와 유사하리라 생각된다. 근무형태에 따라 전일제가 시간제에 비해 생리적 시간이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일 맞벌이여성으

로서 장시간의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에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긴 생리적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수입노동시간은 교육수준이 낮고 전일제이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여성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일 여성의 근무시간의 경향과 유사하다. 가사노동시간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제인 경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여가시간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요일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수입노동시간에는 부적인 방향으로, 가사노동과 여가시간에는 정적인 방향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일 보다는 가정과 여가를 더 중시하는 식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수준의 향상을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배분에 있어 일보다는 가정과 여가중심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선호하리라 분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과 성역할태도는 토요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생활시간사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취학자녀존재는 수입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는 부적인 영향을, 가사노동시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요일 맞벌이 여성임금근로자의 경우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일과 여가시간을 줄여서 자녀 돌보기 등 가사노동시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요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결과, 우선 생리적 시간은 연령

〈표 8〉 토요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생활시간사용

| 토요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생활시간사용 | | | | | | | | |
|--------------------------|------------|--------|------------|----------|-----------|----------|----------|----------|
| 변인 | 생리적 시간 | | 수입노동시간 | | 가사노동시간 | | 여가시간 | |
|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 연령 | -1.752 | -.123* | .333 | .010 | 1.593 | .071 | -.339 | -.016 |
| 교육수준 | 1.048 | .027 | -27.474 | -.301*** | 10.370 | .169*** | 16.006 | .271*** |
| 개인월평균소득 | -.012 | .063 | -.011 | -.004 | .013 | .007 | .018 | .009 |
| 근무형태(전일제 기준) | 21.493 | .092* | 71.619 | .130** | -69.185 | -.187*** | -21.652 | -.061 |
| 미취학자녀유무 (미취학자녀유 기준) | 12.173 | .048 | -77.039 | -.129** | 121.222 | .301*** | -61.788 | -.159*** |
| 성역할태도 | .065 | .000 | -.403 | -.001 | 3.055 | .012 | -2.692 | -.011 |
| 상수항 | 711.522*** | | 533.859*** | | 81.742 | | 101.949 | |
| R ² | .038 | | .131 | | .141 | | .073 | |
| 수정된 R ² | .028 | | .122 | | .132 | | .064 | |
| F | 3.850** | | 14.542*** | | 15.880*** | | 7.653*** | |

* $p < .05$, ** $p < .01$, *** $p < .001$

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노동시간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길었다. 가사노동시간은 교육수준이 높고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더 길어졌으며, 여가시간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 짧아졌다.

일요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시간사용에 있어 교육수준은 수입노동시간에는 부적으로, 가사노동시간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평일과 토요일에서 드러난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배분의 비중이 일보다는 가정에 있다는 것을 일요일의 경우에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평일이나 토요일과는 달리 생리적 시간과 여가시간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근무형

태가 전일제나 시간제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이나 보수적 이냐에 따라 일요일의 생활시간사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미취학자녀의 영향력은 가사노동에는 정적으로 여가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가사노동시간은 길어지고 여가활동시간은 짧아지는 식으로 시간배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남성의 경우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사노동시간은 늘리고, 여가시간은 줄이는 방식으로 시간을 재구조화한 바 있어,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의 경우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남성과 여성의 시간 배분에 유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표 9〉 일요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생활시간사용

| 일요일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생활시간사용 | | | | | | | | |
|--------------------------|------------|---------|----------|--------|-----------|---------|-----------|----------|
| 변인 | 생리적 시간 | | 수입노동시간 | | 가사노동시간 | | 여가시간 | |
|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B(비표준화) | β(표준화) |
| 연령 | -2.331 | -.160** | 2.496 | .088 | .128 | .006 | -.338 | -.014 |
| 교육수준 | -2.336 | -.054 | -9.200 | -.109* | 7.750 | .125* | 3.583 | .051 |
| 개인월평균소득 | .143 | .112* | -.011 | -.004 | -.124 | -.068 | .002 | .001 |
| 근무형태(전일제 기준) | -.318 | -.001 | -17.775 | -.036 | -8.694 | -.024 | 25.146 | .061 |
| 미취학자녀유무 (미취학자녀유 기준) | 22.479 | .080 | -11.543 | -.021 | 81.258 | .204*** | -91.723 | -.203*** |
| 성역할태도 | 3.055 | .017 | -4.154 | -.012 | -.635 | -.002 | 1.228 | .004 |
| 상수항 | 802.626*** | | 159.037 | | 191.536** | | 273.765** | |
| R ² | .054 | | .037 | | .060 | | .041 | |
| 수정된 R ² | .045 | | .027 | | .051 | | .031 | |
| F | 5.822*** | | 3.848*** | | 6.448*** | | 4.280*** | |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맞벌이 임금근로자 생활시간구조가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절대적인 시간면에서 남성의 평일 근무시간이 9시간11분으로 여성의 7시간28분에 비해 훨씬 길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3시간 13분으로 남성의 37분에 비해 훨씬 길었다. 이는 맞벌이 임금근로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가정 중심'의 성역할분담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대상이 임금근로자이므로 남녀 모두 평일 근무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그 다음으로 남성은 여가시간, 가사노동시간의 순으로 시간배분을 하는데 반해, 여성은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의 순으로 시간배분을 하였다.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하는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상황적 여건이 동일하지만, 남성은 '일과 여가'를 중심으로 한 시간배분구조, 여성은 '일과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 시간배분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토요일의 시간구조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 평일에 비해 줄어든 근무시간이 거의 대부분 여가시간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드러난 반면, 여성의 경우 근무시간보다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도 더 많을 정도로 근무시간이 가사노동시간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남녀가 모두 맞벌이 한다는 일차적인 조건은 동일하지만, 남성은 일 이외의 시간을 여가에 더 많이 할애하는데 반해, 여성은 바깥 일 이외에도 가정내 책임까지 수행하느라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간의 생활시간구조를 총노동시간(근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합)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남녀의 역할분담구조와 역할과중분제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평일 남성의 총노동시간은 9시간 48분, 여성의 총노동시간은 10시간 41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53분 노동시간이 더 길다. 근무시간만을 비교할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가사노동까지 합산한 총노동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노동시간이 더 긴 것이다. 토요일의 경우 남성의 총노동시간은 6시간 37분, 여성의 총노동시간은 8시간 18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1시간 21분 정도 더 길다. 남녀간 총노동시간의 격차가 평일에 비해서 더 커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일요일도 남성의 총노동시간은 4시간 16분, 여성의 총노동시간은 6시간 41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2시간 25분이나 길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고, 더불어 남녀간 격차가 평일 53분, 토요일 1시간21

분, 일요일 2시간 25분으로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주5일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주말에 남성은 줄어든 근무시간을 자신의 여가시간으로 재분배하는데 반해, 여성은 가사노동시간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노동시간이 남성만큼 크게 줄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총노동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아도 맞벌이임금근로자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구조가 확연히 다르며,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분담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이중역할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맞벌이 임금근로자 생활시간구조가 성별로 확연히 다른 만큼, 남녀를 분리하여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평일 남성의 경우, 연령은 가사노동에는 부적으로 여가시간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시간배분의 세대 차이를 알 수 있다. 소득은 수입노동시간에는 정적으로 가사노동시간에는 부적으로 나타나, 임금향상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가사노동과 여가시간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종의 소득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취학자녀유무는 수입노동시간에는 부적으로, 가사노동시간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남성도 미취학자녀와 같은 가족적 요구에 의해서 시간배분을 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요일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수적 성역할일수록 수입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나 매우 전통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가사노동과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평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작용했던 것과 달리 토요일에는 소득효과만 나타났다. 주5일제가 편화된되면서 토요일은 쉬는날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의 향상이 일을 더 늘리는 대체효과로 작용하기보다는 가정과 여가시간을 늘리는 방향의 소득효과로 더 강하게 작용한 듯하다. 미취학자녀유무는 가사노동시간에는 정적으로 여가시간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토요일 남성에게 있어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간의 조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미취학자녀로 인해 가사노동과 여가생활간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일요일 남성의 생활시간배분에서도 두드러졌다.

여성의 경우, 연령은 모든 요일에서 생리적 시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연령이 낮을수록 생리적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생활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평일 남성과 같이 가사노동과 여가에서의 연령별 세대 차이를 찾

아볼 수는 없었다. 교육수준은 수입노동시간에는 부적으로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일 남성의 생활시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소득효과와 가치관 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은 평일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득이 높아질 경우에 대체효과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수입노동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가사노동이나 여가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당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근무형태에 따라 전일제는 근로시간이 많고, 시간제는 가사노동, 여가시간이 많은 것은 직업적 조건에서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미취학자녀 존재는 가족내 가사노동에 대한 강력한 요구조건으로 수입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는 부적 방향으로, 가사노동시간에는 정적 방향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미취학자녀유무가 평일 남성의 시간사용에서는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만 영향을 준 반면, 평일 여성의 경우 여가시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여성은 평일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해 수입노동시간 뿐 아니라 자신의 여가시간까지도 줄이는 방식으로 시간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여성이 자녀양육의 주책임자로서 역할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토요일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수입노동시간에는 부적인 방향으로, 가사노동과 여가시간에는 정적인 방향으로 드러나 소득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향상을 소득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 중심의 가치관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배분에 있어 일보다는 가정과 여가중심으로 구조화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소득수준과 성역할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전일제가 수입노동시간이 길고, 가사노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존재는 수입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는 부적인 영향을, 가사노동시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토요일에도 여전히 맞벌이 여성 임금근로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과 여가시간을 줄여서 가사노동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일요일에도 여성의 경우 토요일과 유사한 방향으로 교육수준과 미취학자녀 유무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형태가 전일제나 시간제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이나 보수적이냐에 따라 일요일의 생활시간사용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종합해본 결과, 성역할태도와 같은 인식변수보다는 연령과 미취학자녀유무와 같은 생애주기 변수, 교육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인적자원변수, 근무형태와 같은 직업조건변수에 의해 생활시간배분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즉, 생활시간

배분은 인식이나 태도에 좌우되기보다는 개인의 자원과 가족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논의를 종합하여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맞벌이 임금근로자라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생활시간배분의 성차가 존재하고, 일가정양립구조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은 일과 여가중심의 시간배분, 여성은 일과 가정중심의 시간배분의 양상을 보였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에 남녀간에 시간재구조화 양상을 통해서도 남성은 여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여성은 가사노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간배분의 방향이 달리 나타나, 시간배분구조의 성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총노동시간분석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나, 여성의 역할과중문제가 강하게 드러났다. 결국 함께 일하는 맞벌이임금근로자에게서도 여전히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역할분담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녀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변화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남녀 모두에게서 평일 시간배분에 있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임금수준의 향상이 근로시간을 늘리게 하는 면도 있고, 반면 근로시간을 줄이고 가정과 여가시간을 늘리도록 조정하기도 한다.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시간배분이 달라지는 것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체효과보다는 소득효과가 더 강하게 드러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 보다는 '가정'과 '여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시간배분을 조정하는 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젊은 연령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길고, 나이든 경우 여가시간이 길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간배분에서의 세대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향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일수록 남성들이 일보다는 가정과 여가를 중시하는 패턴으로 시간배분구조가 변화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평일 남녀 모두에게서 수입노동시간은 줄이고 가사노동시간을 늘리게 하는 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보살펴야하는 미취학자녀는 가사노동에 대한 강력한 요구조건으로 남녀 모두에게 시간배분을 결정짓는 중요변수로 드러났다.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면, 평일 여성의 경우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해 여가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시간조정을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여성에게 자녀의 존재는 시간배분의 우선적 고려요건인 것이라는 점에서 남녀간 역할차이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말에는 남녀간 큰 차이가 없이 남녀 모두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가사노동시간은 늘리고, 여가시간은 줄어드는 방식으로 시간배분을 조정하였다. 물론 앞서 남녀간 시간사용량의 차이를 보면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

차적인 자녀양육의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시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남성의 시간배분에 있어서도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가시간을 줄여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요구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향후 연구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를 비교한 것으로 남녀간 차이를 보는데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간의 역할분담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부부를 한 쌍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부간 자원교환관점에서 생활시간배분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 뿐 아니라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변수도 함께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부부간 소득수준의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근무형태나 직업지위의 차이 등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적자원의 상대적 비교우위가 부부의 시간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부간 역할분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녀를 분리하여 생활시간구조분석을 해본 결과, 연령, 교육, 소득의 효과로 시간배분이 '일중심'에서 '가정과 여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다 장기적인 트렌드를 비교해 봄으로써 실제 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매 5년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국민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이런 종단비교가 가능하리라 본다. 1999년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지난 만큼, 10년사이에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남녀간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향요인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비교함으로써 미래 생활시간구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김수정, 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김진옥(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가사노동분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가설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7(3), 51-72.
 김진옥(2008).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 연구. **사회복지정책**, 35, 197-220.
 보건복지부(2011). 새로마지플랜 2015-제2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성지미(2006).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 **노동정책 연구**, 6(4), 1-30.

세계일보(2010. 12. 21). 30-50대 근로자 10명 중 7명 '맞벌이'.
 손문금(2005). 맞벌이부부 여성의 이중부담과 시간의 특성: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부인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소이, 최윤지(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53-68.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혼 및 기혼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이기영, 송혜림, 이승미, 민순선, 서지원(1996).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97-112.
 이기영, 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이기영, 이연숙, 김외숙, 조희금(1996).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2.
 이승미(1994).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충북가정학회지**, 3(1), 23-31.
 이연숙, 이기영, 김외숙, 조희금, 주인숙, Zick, C. D.(2002). 한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39-156.
 이현아, 이기영(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족생활시간에 관한 부부의 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45-160.
 임정빈(198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73-85.
 임정빈, 임혜경(1992).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4), 261-278.
 조영희(2004). 한부모가족의 부, 모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39-151.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13.
 조희금(1997).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1-14.
 차승은(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취업한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 지, 46(1), 103-116.
- 채로,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통계청(2009). **2009년 사회조사**.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서울: 통계청.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 한영선, 윤소영(2009). 미취학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2), 81-95.
- 한지수, 홍공숙(2007).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자녀의 시장노동 참여 및 참여시간 결정요인: 기혼여성자녀와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6), 61-75.
-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8.
- Becker, G.(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Gershuny, J., Godwin, M., & Jones, S.(1994). *The Domestic Labor Revolution : A Process of Lagged Adaptation* in M. Anderson et al., *The Social and Political Economy of the Household*. Oxford University Press. 161-197.
- Gronau, R.(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1099-1123.
- Mincer, J.(1962).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접 수 일 : 2011년 3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1년 4월 6일
게재확정일 : 2011년 5월 6일